

남구 장병완 독주... 서구갑 '486' 송갑석 선두로

박주선·양형일 오차범위 접전... 이병훈 맹추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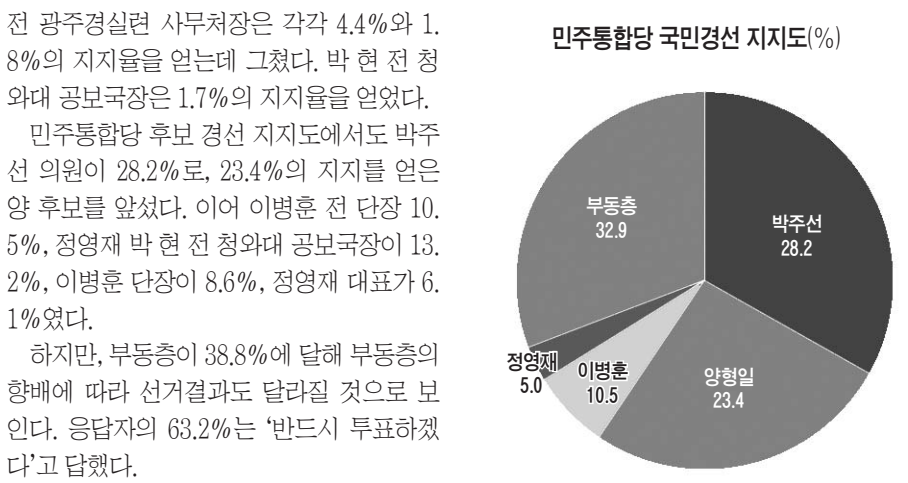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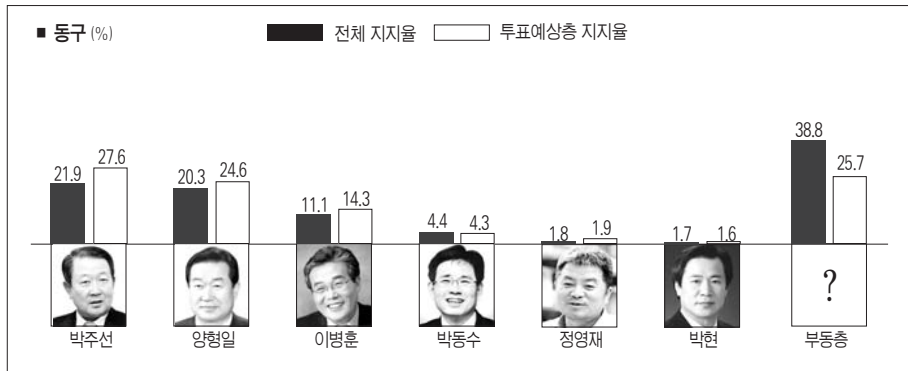
김명진 2위... 63%가 "지지후보 못정했다"

동구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호각지세' (互角之勢)를 보이고 있다.

'리턴 매치'를 벌이고 있는 박주선 현 국회의원과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이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19대 총선 지지후보를 묻는 조사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21.9%의 지지율을 얻어 고도회복에 나선 양 후보(20.3%)를 1.6% 포인트 앞섰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4.4%포인트다. 지난 달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양 후보가 박 의원을 0.2%포인트 앞섰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박 의원이 양 후보를 앞서는 등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어 이병훈 전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11.1%를 얻어 두 후보를 쫓고 있다. 뒤늦게 동구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지난 여론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3%포인트 이상 오르는 등 아시아문화전당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수 빛고를 나눔문화연대 동구지회 부회장과 정영재



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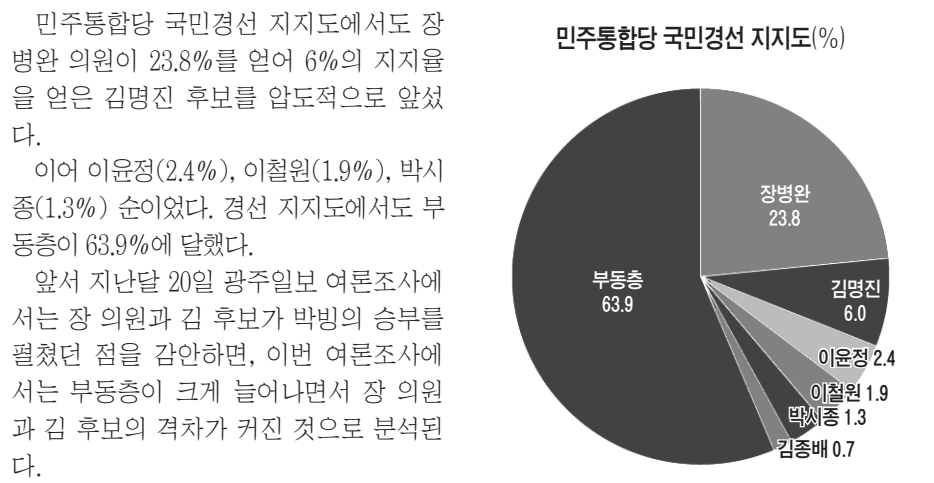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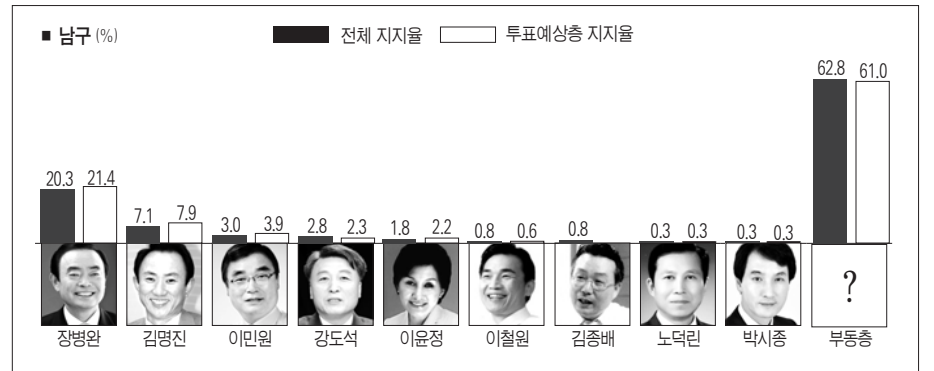
지난 2010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통합당 장병완 의원이 20.3%로 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명진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부행정관 7.1%, 이민원 전 노무현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3.0%, 강도석 전 광주시의원 2.8%, 이윤정 전 노무현정부 한전 KDN 상임감사 1.8% 순이었다.

이철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과 김종배 전 국회의원은 각 0.8%의 지지율을 그쳤고, 한나라당 후보인 노덕린 민주당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과 박시중 광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각 0.3%의 지지율을 얻었다.

하지만, 부동층이 62.8%인 반면 투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 76.5%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해 적극적인 투표 층이 아직까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부동층의 향배가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정용화 두자릿수 지지율로 선전

민주당 후보 9명 난립... 유권자 53% "꼭 투표하겠다"

서구갑

송갑석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현역인 조영택 국회의원을 10% 포인트 이상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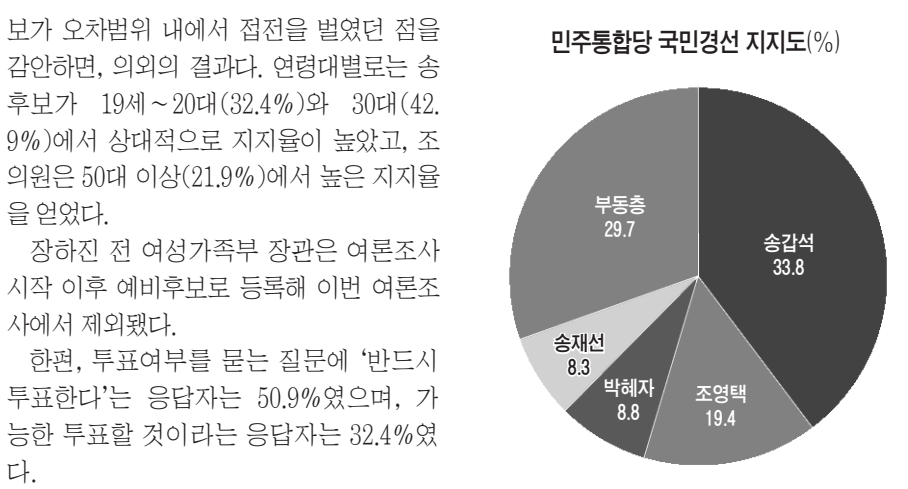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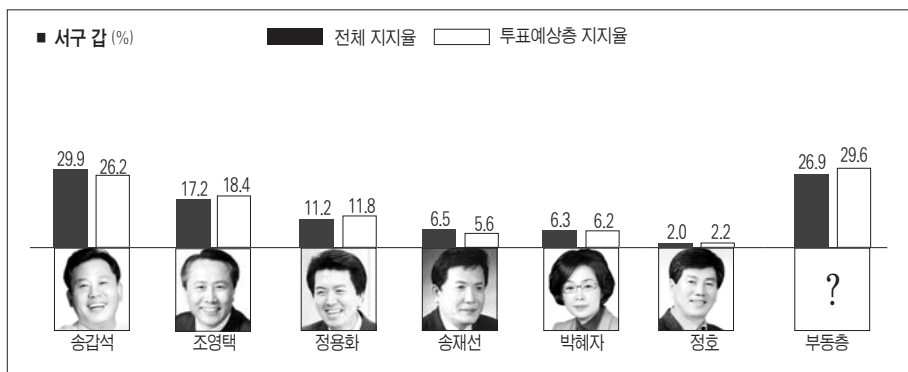
송 후보는 29.9%의 지지율을 얻어 17.2%의 지지율을 보인 조 의원을 12.7%포인트 앞섰다.

이어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용화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11.2%를 차지하며 민주당통합당 후보를 추격중이다.

송재선 전 광주시의원과 박해자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각 6.5%, 6.3%의 지지율을 얻었고, 뒤늦게 출마한 통합진보당 후보인 정 호 전 민주노동당 환경위원장은 2.0%의 지지율에 그쳤다. 부동층은 26.9%였다.

민주당통합 국민경선 지도도에서도 송 후보가 33.8%로, 19.4%를 얻은 조 의원을 14.4%포인트나 앞섰다. 이어 박해자(8.8%), 송재선(8.3%) 순이었다.

그동안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두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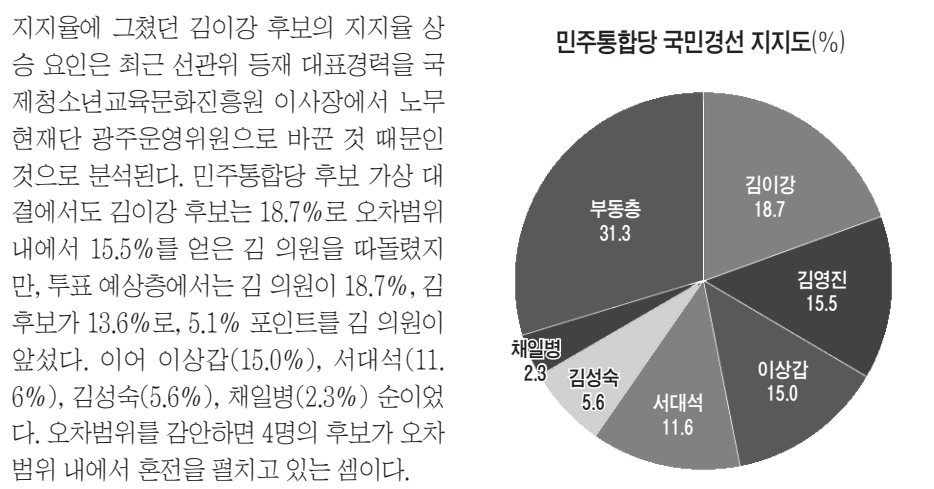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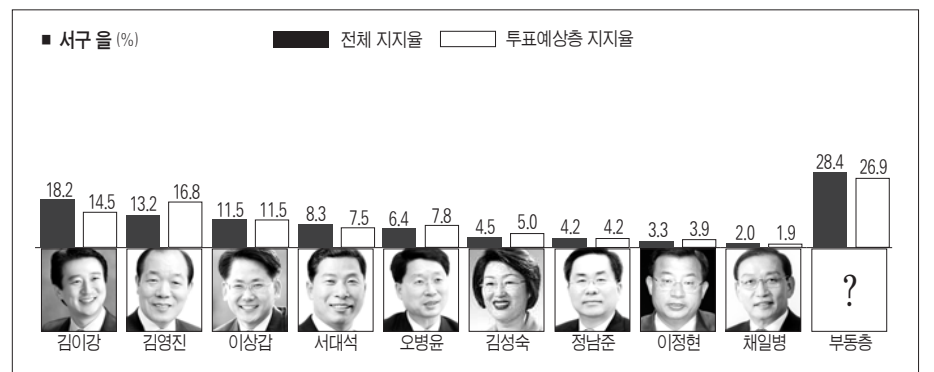


서구을

9명의 예비후보들이 난립한 광주 서구을에서는 다자대결에서 40세의 김이강 후보가 6선에 도전하는 김영진 국회의원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노무현 재단 광주운영위원인 김 후보는 18.2%의 지지율을 얻어 13.2%의 지지율에 그친 김 의원을 오차범위(±4.4%포인트) 내에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응답자 중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투표 예상층에서는 김영진 의원이 16.8%로, 14.5%의 김이강 후보를 뒤잡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상갑 전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이 11.5%, 서대석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관이 8.3%, 오병윤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6.4%의 지지율을 얻으며 선두권을 쫓고 있다. 또 김성숙 전 광주시의원과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각각 4.5%, 4.2%의 지지율을 얻었고,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채일병 전 부패방지위원회 초대 사무처장은 각각 3.3%, 2.0%의 지지율에 그쳤다. 부동층은 28.4%였다.

지난달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5.4%의



일부후보들 단일화 땐 경선구도 출렁일 듯

최경주 1위 파란... 현역 김재균과 0.9%P차

북구갑

민주당통합 4명의 후보가 오차범위(±4.4%)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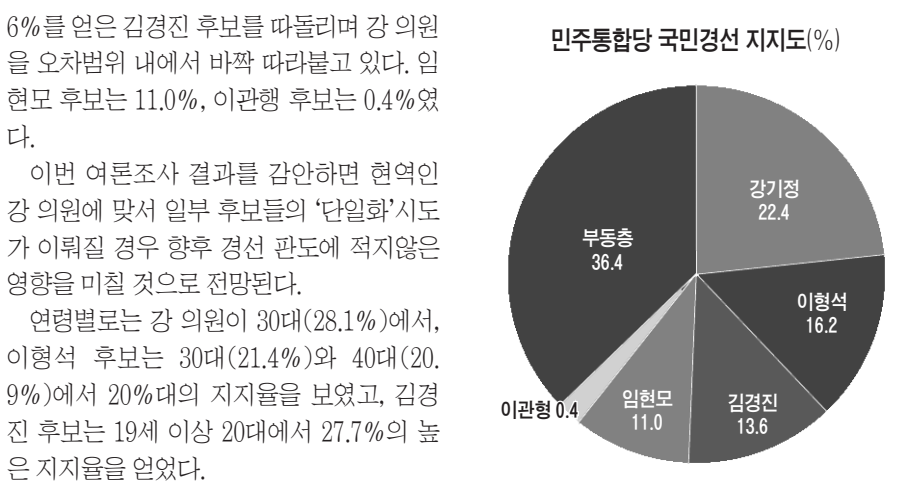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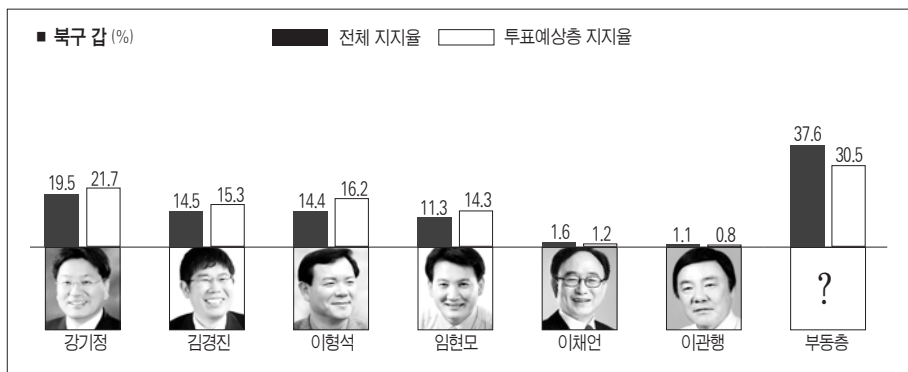
3선에 도전하는 강기정 의원이 19.5%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김경진 촛불민권연대 자문변호사가 14.5%, 이형석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이 14.4%, 임현모 전 광주교대 총장이 11.3%로, 오차범위 내에서 강 의원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어 통합진보당 후보인 이재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1.6%, 이관행 전 광주·전남 ROTC 총동우회장이 1.1%의 지지율을 얻었다. 부동층은 37.6%였다.

이형석 후보는 최근 박규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성공함에 따라 지지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통합 국민경선 지도도에서도 강기정 의원이 22.4%의 지지율로, 1위를 고수했다.

하지만, 이형석 후보가 16.2%를 얻어 13.



북구을

다자대결에서 최경주 전 노무현대통령 선대위 호남권역본부장이 13.7%의 지지율로, 재선에 도전하는 김재균 의원(12.8%)을 오차범위(±4.4%포인트) 내에서 0.9%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이번 조사에서 현역인 김 의원은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다.

이어 임내현 전 광주교감장이 10.0%, 최경환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이 9.8%의 지지율로 뒤를 쫓고 있고,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장 공동대표는 5.1% 지지율을 얻었다. 안영돈 진보신당 북구당원 협의회 위원장은 0.7% 지지율에 그쳤다. 반면, 투표 예상 층에서는 김 의원이 14.9%, 최 후보가 12.2%의 지지율을 얻어 순위 바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층이 47.9%에 달하는데다 1위부터 5위 후보의 지지율이 모두 오차범위 이내라는 점에서 향후 후보들의 선거운동 향방에 따라 순위 변경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